



도로는 건설사업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대 함으로  
국가 기술을 선도하는 자부심을 갖고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길...

Greentings message

저는 바로 어제 경북 경주시에 있는 감포읍을 다녀왔습니다. 지역민들의 숙원사업 이던 감포댐의 준공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 약 30km 정도 된다는 '감포대로' 를 달리면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아름다운 길' 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니 수상작으로 전시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문인이나 미술사가들이 시나 소설, 수필 등 문학을 통해 극찬을 하며 소개했더군요. 이 정도면 '아름다운 길' 을 알아보는 저의 안목이 문학에 좀 가까운 것인가요?

친애하는 도로교통인 여러분,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한국도로교통협회 손학래 회장님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15회 도로의 날을 맞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을 선정해 전시회를 가지는 것처럼, 이제 도로는 단지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예술성이나 미관, 역사성, 친근성도 함께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는 그동안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상징해왔으며, 그 경제적 가치와 기능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로의 날인 오늘도 36년 전 오늘, 즉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경제 발전, 또, '1일 생활권' 으로 대표되는 국민생활의 편의성 증대 등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경부고속도로는 어려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당당히 일어서는 땀과 노력, 긍지와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1970년 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부족한 국가 자본과 기술력의 한계를 오직 국가 발전을 위한 숭고한 열정과 헌신적인 희생정신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3천여km에 달하는 고속도로망과 총 연장 10만여km의 도로망을 보유한 도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그동안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헌신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 근래에 들어 정부예산 부문에서 복지 등 타 분야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로 부문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로 등 SOC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민자고속도로 추진, 도로공사 ABS 발행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통해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로를 포함한 SOC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과제는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남북통일을 대비한 남북 연결도로사업과 아시아 각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사업 등도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는 건설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여 타 건설 기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국가 기술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고 빠른 인간중심의 도로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갑시다. 정부도 도로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도로교통 분야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21세기 우리 도로교통인이 수행하여야 할 막중한 역할을 다시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로교통인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7일  
건설교통부 장관 추 병 직